

# 夫婦의 同質性이 結婚의 質에 미치는 影響

鄭基源\*·李相暎\*\*

이 研究에서는 夫婦의 同質性이 結婚의 質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結婚의 質은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로 구분되어 測定되었다. 主觀的 指標는 부인이 남편의 여러 측면에 대해 느끼는 主觀的인 滿足度나 結婚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에 바탕을 두고 算出하였고, 客觀的 指標는 주로 부부간의 相互關係에 바탕을 두고 測定하였다. 부부간의 同質性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지니고 있던 屬性들이 서로 같았는지, 아니면 달랐는지를 바탕으로 정의하였고, 出生地, 宗教, 年齡, 그리고 學歷을 중심으로 同質性을 측정하였다.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의해 1989년에 수행된 '韓國 家族機能 調査'의 資料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實證分析의 結果에서는 結婚의 質을 나타내는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 사이에는 큰 相關關係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分析의 틀에 人口·家族의 特性과 社會·經濟的 特性 등을 統制變數로 포함시킨 回歸分析의 結果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부부의 同質性에 따라서 結婚의 質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外國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實證分析의 結果들을 뒷받침해 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結婚의 質에 대한 연구가 本格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제한된 資料를 이용한 實證分析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課題를 理論的인 측면에서의 方法論的인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 I.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에서의 婚姻이나 結婚<sup>1)</sup>에 관한 研究는 매우 한정적이다. 이때까지 이루어진 結婚研究에서는 주로 家族制度의 變化에서 나타나는 婚姻의 類型을 다루거나, 아니면 婚姻의 과정에

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實態를 家族人口學的 接近에서 다루고 있다.

産業化 過程에서 보이는 家族價値의 混亂,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家族의 崩壞나 解體는 現代家族의 危機로 불리워진다(공세권 외, 1990 : 13). 우리나라의 離婚率은 해마다 증가하여,

\* 本院 責任研究員

\*\* 本院 主任研究員

1) 이 글에서는 혼인과 이혼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의 동태현상으로, 그리고 혼인에서 이혼(또는 사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을 결혼으로 정의하였다.

1960년에는 인구 1,000명에 대해 0.28명이던 離婚率이 1985년에는 1.84명으로 증가하였다(韓國女性開發院, 1991: 99). 이러한 離婚率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展望이다.

人口動態申告에 바탕을 두는 人口動態統計의 資料에서는 1989년에 발생한 32,474件<sup>2)</sup>의 이혼 중에서 夫婦의 불화로 인한 離婚이 27,230件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全體 離婚의 83.9퍼센트에 이른다. 부부간의 불화를 이유로 하는 離婚이 74.4퍼센트를 차지했던 1980년의 統計와 비교하면 10퍼센트 포인트 가량이 증가된 셈이다. 離婚率이 늘어나고, 또한 이혼의 이유가 대개 부부간의 불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때까지의 結婚研究나 家族研究에서는 結婚의 質에 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結婚의 質에 관한 研究에서 제기되는 여러 方法論上的의 問題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한 研究을 위한 이론적 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結婚의 質에 관한 研究에 필요한 資料가 제대로 蒐集되지 않았기 때문에 結婚의 質에 관한 研究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研究에서는 夫婦의 同質性이 結婚의 質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비록 대부분이 外國의 경우이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研究의 結果에서 結婚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研究에서는 資料의 制限으로 인하여 夫婦의 同質性和 結婚의 質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 II. 結婚의 質

### 1. 理論的 背景

글렌(Glenn, 1990: 818)은 지난 10년동안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結婚의 質에 관한 研究를 概觀하면서,

“몇몇의 理論的 觀點, 그중에서도 특히 交換 理論에 바탕을 둔 觀點들이 結婚의 質에 대한 分析의 틀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이 主題(結婚의 質)에 대한 實證分析의 내용들은 결코 理論의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 80年代에는 理論에 대한 관심 조차도 없었다.”

라고 主張하고 있다. 結婚의 質에 관한 研究에서 기존의 社會理論이나 家族理論들이 제대로 분석의 틀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은 가족이 지니는 特殊性에서 비롯된다. 家族은 ‘가장 원초적이고 친밀한 관계이므로...,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더라도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해 갈 수 밖에 없는 복잡한 關係’(이효재, 1983: 1)인데, 이러한 원초적 관계를 客觀化시키거나, 科學的인 理論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몇몇 학자들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루이스와 스페니어(Lewis and Spannier, 1979)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가설들이다.

그들은 結婚의 質에 대한 이론의 틀을 구성하면서, 結婚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여러 특성들, 結婚生活을 하면서 형성된 社會經濟的의 特性들, 그리고 夫婦生活에서 나타나는 相互關係의 特性 등이 結婚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바탕으로 74개의 1次 命題와

2) 이는 1989년에 접수된 44,035건의 이혼신고 중에서 1989년에 발생된 이혼의 건수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실제 1989년에 일어난 이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모두 신고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한다.

3) 각 요소가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루이스와 스페니어, 1979: 274~284를 참조하면 된다.

13개의 2次 命題를 만들었다. 婚前의 特性에는 夫婦의 同質性, 心理的 및 經濟的 바탕, 親家의 背景,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영향 등이 포함되고, 社會經濟的 特性에는 婦인의 就業狀態, 家口 또는 家族構造, 그리고 주변환경 등이 포함된다. 結婚生活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夫婦간의 相互關係도 結婚의 質에 影響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자세, 감정상태, 의사소통의 頻度와 類型, 사회 및 가정 안에서 的 役割調整, 그리고 相互作用 등이 포함된다.

結婚의 質에 관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 的 重要한 問題는 結婚의 質을 어떻게 조작 적으로 정의하고, 또 측정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結婚의 質을 定義하고 測定하는 問題는 접근하는 觀點에 따라서 調整學派(adjustment school)와 個人感情學派(individual feelings school)로 나뉘 진다(글렌, 1990). 結婚에 대한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에서는 結婚의 質을 단순히 結婚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의 問題로 定義하고, 그리고 結婚의 滿足度나 幸福感에 대한 當事者의 판단을 結婚의 質에 대한 指標로 삼는데, 노튼(Norton, 1983)과 핀참과 브래드베리(Fincham and Bradburry, 1987)의 연구에서 이러한 觀點이 잘 나타나고 있다. 結婚生活에 대한 主觀的 判斷만을 바탕으로 結婚의 質을 測定하는 경우에는 結婚의 質이 結婚生活에 있어서의 幸福 感만으로 정의되는 극단적인 立場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존슨 等(Johnson et al., 1986)은 要因分析을 통해 밝혀낸 다섯가지 要因들(결혼의 행복도, 상호작용, 夫婦간의 갈등과 불화, 그리고 단절)이 모두 相互作用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結婚의 質을 結婚生活에서 나타나는 夫婦간의 調整 內容을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客觀的인 方法을 통한 指數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스페니어(Span-

nier, 1976)의 夫婦調整尺度(dyadic adjustment scale)가 대표적인 例에 속한다.

結婚의 質에 대한 測定은 연구자가 어떠한 理論을 背景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結婚生活에서 夫婦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結婚의 滿足度 또는 幸福感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結婚生活의 形態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結婚의 質을 主觀的인 形態와 客觀的인 形態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루이스와 스페니어(1979)가 얘기하는 결혼의 安定性을 援用하여 夫婦간에 일어나는 相互作用의 程度를 結婚의 質을 나타내는 客觀的 指標로 삼았고, 主觀的 結婚의 質은 夫婦關係에 대한 당사자의 主觀的 評價로 정의하였다.

## 2. 夫婦의 同質性和 結婚의 質

婚姻은 人間關係에서 이루어지는 社會的 行動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影響을 미치는 一般的 傾向과 社會的 基準이 있게 마련이다(이 효재, 1983 : 175). 現代社會에 있어서도 배우자 간의 同質性이 배우자 선택에 주요한 影響을 미치는데, 이효재(1983)는 배우자간의 同質性을 ‘통혼조건’의 한 要素로 삼는다. 그녀는 地域的, 宗教的, 그리고 社會經濟的 同質性을 지닌 社會 集團안에서 통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夫婦간의 同質性이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異質的인 사람들이 혼인을 할 경우에는 同質性의 缺乏으로 인하여 結婚의 質이 낮게 나타난다(루이스와 스페니어, 1979). 夫婦 간의 地域的 異質性은 婚姻 前에 경험했던 文化的 背景의 차이와 性役割에 대한 價値觀의 不一致로 나타나기 쉽고, 이로 인한 價値觀의 葛藤은 結婚의 質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夫婦 간의 宗教가 다른 경우에는 結婚에 대한 滿足

도가 낮거나(오르테가 외, Ortega et al., 1988), 또는離婚에 이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히튼 외, Heaton et al., 1985). 부부간의 宗教가 서로 다르면 信仰生活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이런 現象은 부부간의 葛藤을 야기시키는 要因이 된다. 그리고 葛藤이 생겼을 때 이를 調整할 수 있는 共通的인 價値觀이 별로 생겨나지 않는다(쉬헨 외, Shehan et al., 1990).

結婚의 質은 부부가 婚姻을 하기 전부터 지니고 있던 屬性들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結婚後에 나타나는 社會的 與件이나 經濟的 環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루이스와 스페니어(1979)는 結婚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婚姻後의 要因으로 家族 또는 家口の 社會經濟的 特性, 婦人의 就業與否, 家族의 構成形態, 地域社會와의 關係, 부부간의 肯定的인 關心度, 感情의 一致 與否, 對話의 種類와 頻度, 性役割에 대한 價値觀, 그리고 相互作用의 內容 등 9가지를 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婦人의 就業與否와 家口の 社會經濟的 狀態가 結婚의 質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實證研究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家口の 經濟狀態가 結婚의 質에 미치는 影響의 方向이나 크기에 대한 實證分析의 結果들은 서로 一貫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p>4)</sup>. 우리나라의 경우 産業社會의 初期 段階에서는 社會經濟的 地位의 向上은 西歐文化에 同化되는 傾向으로 나타나서 結婚에 관련된 傳統的인 價値觀의 解體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初期 産業社會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集團에서의 離婚率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産業社會가 더욱 진전되고 資本主義의 價値觀이 사회에 고루 퍼져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풍요로움이 生活의 質을 決定하는 要人으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婦人의 就業이 結婚의 質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친다는 研究의 結果는 여성들의 勞動力 參加率이 높아짐에 따라 離婚率도 증가된다는 현상학적 설명(에드워드 외, Edwards et al., 1992)을 바탕으로 하거나, 女性의 勞動力 參加보다는 이를 뒷바침하는 性役割에 대한 價値觀의 변화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반노이와 필리버, Vannoy and Philliber, 1992). 그러나 어떠한 설명도 婦人의 就業이 家族生活에 미치는 過程의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데(휴즈 외, Hughes et al., 1992). 이것은 婦人의 就業과 관련된 여러 조건들이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이다.

### 3. 檢證 假說의 設定

交換理論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존연구의 結果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家族生活에서 結婚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에 대한 假說들을 設定할 수가 있다. 이 研究에서는 부부간의 同質性과 結婚의 質에 초점을 맞추면서, '家族機能調査'의 資料를 이용한 實證分析에서 檢證될 假說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假說 1. 부부간의 同質性이 높을수록 結婚의 質은 높아진다.

- ① 고향이 같은 부부가 혼인을 했을 경우에 그들이 누리는 결혼의 질은 고향이 다른 경우보다 높다.
- ② 같은 종교를 가진 부부의 결혼의 질은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보다 높다.
- ③ 부부의 나이차가 클수록 결혼의 질은 떨어진다.
- ④ 부부의 학력차가 클수록 결혼의 질은 낮아

4) 경제적 궁핍과 결혼의 질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들에 대한 기존 문헌의 고찰은 클라크 니콜라스와 게리 리틀(Clark-Nicholas and Gary-Little, 1991)을 참조하기 바란다.

진다.

假說 2. 結婚의 質은 그들이 속한 家族이나 家  
口의 背景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 ① 子女의 數가 많을수록 結婚의 質은 낮아진다.
- ② (시)부모와 함께 사는 부부가 보이는 결혼의  
질은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난다.
- ③ 結婚期間이 오래 될수록 結婚의 질은 낮아  
진다.

假說 3. 부부가 지니는 社會經濟的 與件에 따라  
結婚의 질은 달라진다.

- ① 家口 또는 家族의 所得이 높을수록 結婚의  
質도 높아진다.
- ② 부인이 취업한 경우의 부부가 갖게 되는  
結婚의 質은 부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  
우보다 낮다.

### III. 資料 및 分析 方法

#### 1. 資料

이 研究에서의 實證分析은 1989년에 韓國人口  
保健研究院이 수행한 '韓國家族機能 研究'의 調  
查資料를 바탕으로 했다. 이 調査는 多段階 確率  
標本方法에 의하여 추출된 全國<sup>5)</sup>의 3,232 家口를  
대상으로 1989년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  
시되었는데<sup>6)</sup>, 이들 家口에 속해있는 만 15세  
이상의 既婚婦人 2,838명에게서 얻어진 응답의  
내용을 實證分析의 資料로 사용하였다. 調査된  
2,838명의 婦人 중에서 이혼·별거·사별 상태에  
있는 부인들과 實證分析에 사용된 主要變數들에  
대해 응답을 제시하지 않은 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2,260명<sup>7)</sup>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았다.

이 調査資料는 만 15세 이상의 既婚婦人이  
속해 있는 家口 및 家口員에 관한 사항, 부인의  
結婚 및 夫婦關係에 관한 사항, 出産 및 子女  
養育에 관한 사항, 부인의 就業에 관한 사항,  
家族關係 및 役割에 관한 사항 등 부인의 結婚  
및 家族關係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結婚의 質을 나타내는 指標의 算定이나  
이를 從屬變數로 한 因果關係 分析에 사용될  
각종 變數들을 폭넓게 선정할 수 있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었다.

#### 2. 變數의 測定

從屬變數: 實證分析에서 從屬變數로 쓰인 結  
婚의 質은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의 두가지  
指標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主觀的 指標는 부인이 남편의 여러 측면에  
대해 느끼는 主觀的인 滿足度나 結婚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에 바탕을 두고 算出하였는데, 사용된  
구체적인 項目들은 기혼의 부인들에게 물어본  
설문 '\_\_\_\_\_께서는 이제까지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에서 주어진,

- ① 남편의 性格
- ② 自身에 대한 愛情
- ③ 남편의 職業(職場) 및 收入
- ④ 남편의 飲酒·吸煙·習慣
- ⑤ 남편의 健康

등에 관한 滿足의 程度이다. 이들에 대한 부인의  
응답은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5단계의 順位로 나타나고, 각 順位에 주어진  
값은 1(=매우 불만족)부터 5(=매우 만족)까지

5)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섬지역은 표본추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표본추출의 구체적 방법은 공세권 외(1990: 17~25)에 잘 설명되어 있다.

7) 무응답의 수가 각 변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통계분석에 있어서도 사용된 변수에 따라 분석 대상의  
수가 다르다. 이 수치는 각 통계분석에서 사용된 건수의 평균치를 말한다.

가 된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부인이 結婚生活에 느끼는 滿足度는 높다.

그리고 主觀的 指標의 算定에 結婚의 必要性에 관한 질문에 대한 부인의 응답도 포함시켰는데, 이는 설문 ‘\_\_\_\_\_께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응답 내용에 바탕을 두었다. 이에 대한 대답도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좋다(=1)’에서 ‘결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5)’까지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客觀的 指標는 주로 부부간의 相互關係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項目들은,

① 부부동반 장보기 빈도

② 부부동반 外出 또는 친목모임 參加 頻度

③ 직장일에 관한 부부간의 對話 頻度

④ 子女問題, 집안일에 관한 부부간의 對話 頻度

⑤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社會的 모임 有 無

⑥ 부인과 남편 각각의 친구들을 부부가 서로 알고 있는 程度

등이었다. 頻度에 관한 項目은 ‘전혀 안다닌다’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1)’에서 ‘언제나 함께 다닌다’ 또는 ‘거의 매일 한다(=5)’까지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의 친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1)’에서 ‘모두 안다(=5)’의 5단계로 측정하였으며,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Variables Used in Developing Subjective and Objective Indexes for Marital Quality      主觀的 및 客觀的 指標 算定에 사용된 各 變數들의 平均 및 標準偏差

Items	Mean	S.D.
<u>Items for Subjective Index</u>		
Satisfaction with husband's :		
mental character(Y1)	3.3	0.87
affection for herself(Y2)	3.7	0.75
job & income(Y3)	3.0	0.86
drinking & smoking habits(Y4)	3.1	1.00
health(Y5)	3.5	0.92
Attitude to marriage(Y6)	3.1	1.25
<u>Items for Objective Index</u>		
How frequently :		
go for shopping together? (Y7)	2.6	1.10
go outdoors and participate in social gatherings together? (Y8)	2.9	1.00
talk together about what happened at husband's work place? (Y9)	3.1	1.05
talk together about child or domestic affairs? (Y10)	3.7	0.85
How much each spouse knows about the other's friends? (Y11)	3.5	0.80
Whether the couple have any social meetings that they attend together? (0=no, 1=yes) (Y12)	0.2	0.41

공동으로 가입하였거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모임이나 단체에 관해서는 없는 경우(=0)와 있는 경우(=1)로 구분되었다.

結婚의 質에 대한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를 만드는 데 사용된 項目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정리하였다. 結婚의 質을 나타내는 指標의 算定을 위해 사용된 變數들은 順位的 尺度로 測定되었는데, 일반적으로 順位的 尺度의 사용에는 몇가지 限界點이 있다. 즉, 응답자 개인별로 認識體系의 差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응답자는 '매우 자주 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또 다른 어떤 응답자는 '자주 한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응답자들이 '매우 만족한다' 혹은 '매우 불만족한다' 등의 극단적인 응답보다는 '만족하는 편이다' 혹은 '불만족하는 편이다' 등의 中

位的인 應答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應答의 범위가 좁고 측정된 應答值의 變量(variance)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算出에 사용된 變數들의 平均値가 모두 1에서 5까지의 尺度範圍中 中間値라 할 수 있는 3에 근접한 數値들을 보이고 있으며,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도 1 혹은 그 이하의 낮은 數値를 보이고 있다. 客觀的 指標에 사용된 變數들에 있어서도, 이들 변수들이 주로 부부간의 對話頻度 등 각종 頻度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실제 측정된 척도(scale)는 數量的(numeric) 尺度가 아니고 順位的(ordinal) 尺度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順位的 尺度가 가지는 몇가지 限界點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指標算定에 사용된 각 變數들간의 相關係數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sup>1)</sup> between the Variables Used for Measuring the Subjective Index  
主觀的 指標 算定에 사용된 變數들間的 相關係數

Variables <sup>2)</sup>	Y <sub>1</sub>	Y <sub>2</sub>	Y <sub>3</sub>	Y <sub>4</sub>	Y <sub>5</sub>	Y <sub>6</sub>
Y <sub>1</sub>	1.00					
Y <sub>2</sub>	0.54	1.00				
Y <sub>3</sub>	0.31	0.32	1.00			
Y <sub>4</sub>	0.27	0.22	0.23	1.00		
Y <sub>5</sub>	0.20	0.21	0.20	0.20	1.00	
Y <sub>6</sub>	0.20	0.15	0.12	0.12	0.05	1.00

1) Zero-order correlation coefficients

2) For notations of the variables, refer to <Table 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sup>1)</sup> between the Variables Used for Measuring the Objective Index  
主觀的 指標 算定에 사용된 變數들 間的 相關係數

Variables <sup>2)</sup>	Y <sub>7</sub>	Y <sub>8</sub>	Y <sub>9</sub>	Y <sub>10</sub>	Y <sub>11</sub>	Y <sub>12</sub>
Y <sub>7</sub>	1.00					
Y <sub>8</sub>	0.54	1.00				
Y <sub>9</sub>	0.31	0.32	1.00			
Y <sub>10</sub>	0.27	0.22	0.23	1.00		
Y <sub>11</sub>	0.20	0.21	0.20	0.20	1.00	
Y <sub>12</sub>	0.20	0.15	0.12	0.12	0.05	1.00

1) Zero-order correlation coefficients

2) For notations of the variables, refer to <Table 1>

(Zero-order Correlation Coefficients)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데, 몇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0.3 이하의 낮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變數들을 사용한 指標의 算定은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졌다. 要因分析에 있어서는, 主觀的 指標 算出을 위한 要因分析과 客觀的 指標 算出을 위한 要因分析 두가지를 실시하였다. 要因(Factor)의 數는 각각의 要因分析에 대해 한개씩만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각각 한개씩의 要因들만을 선정한 것은, 설사 여러개의 요인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指標로 算定되기 위해서는 다시 일정한 技法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실제 分析 結果에서도 각각 하나씩의 要因들을 제외한 나머지 要因들은 극히 낮은 說明力(Eigenvalue)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씩의 要因들만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要因들은 각 要因分析에 포함된 變數들의 總分散중 각각 25.6 퍼센트, 25.8 퍼센트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최종적인 指標의 算定은 각 變數들에 대해 要因分析의 結果를 통해 얻은 要因係數(Factor-Score Coefficients)를 곱하여 구하였는데, 각 變數들의 平均과 標準偏差를 이용해 개별 分析單位(여기서는 부인)別로 가지는 變數의 값을 標準化시킨 다음 산출하였기 때문에 指標의 평균값은 '0'이다<sup>9)</sup>. 따라서 산출된 指標가 '負'의 값을 가질수록 結婚의 質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正'의 값을 가질수록 結婚의 質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要因分析을 통하여 측정된 結婚의 質에 대한 客觀的 및 主觀的 指標의 값이 지나는

平均과 標準偏差를 다른 변수들과 함께 <표 4>에 정리하였다.

夫婦間的 同質性: 부부간의 同質性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지니고 있던 屬性들이 서로 같았는지, 아니면 달랐는지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서로의 特性이 같은 경우엔 同質性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서로 다를 경우엔 同質性이 없는 異質的인 夫婦로 정의하였다. 부부간의 同質性은 出生地, 宗教, 年齡, 그리고 學歷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는데, 출생한 지역이 같은 道(市)에 속하는 경우엔 地域的 同質性이 있는 것으로, 그 외의 경우는 地域的 異質性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부인의 종교가 남편의 종교와 같은 경우엔 부부간에 宗教的 同質性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부부가 모두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는 모두 宗教的인 同質性이 없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年齡과 學歷을 바탕으로 하는 부부간의 同質性은 부부간의 差異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年齡과 學歷에 있어 부부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부부간의 同質性은 높은 것으로, 그리고 차이가 클수록 同質性이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부부간의 年齡隔差에 대해서는 남편이 부인보다 연상인 경우나 부인이 남편보다 연상인 경우에 상관없이 그 차이만을 고려하였는데, 평균적으로 4.1세의 차이를 보였다. 부부간의 學歷隔差에 있어서도 남편의 教育年數가 부인의 教育年數보다 많은 경우나 부인의 教育年數가 남편보다 많은 경우에 관계없이 그 차이만을 고려하였는데, 그 차이는 평균적으로 2.0년이었다. 부부간의 年齡이나 教育年數에 있어서 남편이 부인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부인이 남편보다 많은 경우를 별도로 고려해 보기 위해 이를 더미화하여 獨

8) 요인분석의 결과 얻어진 요인치계수는 <표 4>의 각주 1) 및 2)를 참조하면 된다.

9) 각 변수들에 대한 요인치계수를 a1, a2, a3...라 하고, 요인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y1, y2, y3...라 하면, 지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in the Model  
客觀的 指標 算定에 사용된 變數들間的 相關係數

Variables	Mean	S.D.
<u>Marital Quality<sup>1)</sup></u>		
Subjective index	0.0	0.86
Objective index	0.0	0.83
<u>Homogamy</u>		
Birth place(0=same province ; 1=otherwise)	0.5	0.50
Religious affiliation(0=same ; 1=0therwise)	0.1	0.31
Education(years of difference)	2.0	2.38
Age(years of difference)	4.1	3.05
<u>Demographic and Family Characteristics</u>		
Whether live with parents ? (0=yes ; 1=no)	0.9	0.33
Number of children	2.8	1.80
Duration of marriage(years)	17.5	13.60
<u>Socio-economic Characteristics</u>		
Household's Monthly income(10,000Won)	64.9	44.87
Whether the wife paraticipate in labor force ? (0=no ; 1=yes)	0.4	0.50

<sup>1)</sup> Both the indexes were measured as follows.

$$\text{Subj. Index} = 0.44Y_1 + 0.37Y_2 + 0.15Y_3 + 0.11Y_4 + 0.09Y_5 - 0.71Y_6$$

$$\text{Obj. Index} = 0.25Y_7 + 0.10Y_{12} + 0.39Y_8 + 0.18Y_9 + 0.20Y_{10} + 0.18Y_{11}$$

where coefficients are factor-score coefficients obtained from factor analyses(For notations of variables, refer to <Table 1>).

立變數로 사용해 보았으나 從屬變數인 結婚의 質과의 관계에서 統計的인 有意性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研究에서는 단지 그 隔差만을 고려하였다.

統制變數 : 實證分析의 틀에 人口·家族의 特性和 社會·經濟的 特性 등에 관한 몇가지 變數를 포함시켰다. 이는 結婚의 質과 부부의 同質性 사이의 관계를 分析함에 있어 이들 요인들의 影響力을 統制하기 위해서였다. 부부의 同質性和 結婚의 質의 관계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타 變數들의 影響力을 반드시 통제하여야 한다. 부부의 同質性的 '정도' 혹은 '수준' 은 결혼후에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로 이미 결혼할 당시에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부의 同質性이 結婚의 質에 미치는 影響은 그

부부의 結婚期間 全般에 걸친 總體的인 影響으로서 結婚期間의 進行과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결혼할 당시 부부의 同質性的 '정도'가 동일한 한 결혼코오트를 가정하여 볼 때, 결혼 후 일정시점에서 이들 부부들의 結婚의 質이 서로 다른 水準을 보이는 것은 그 사이 각 부부들의 人口·社會·經濟的 特性 등이 서로 다른 變化를 가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夫婦의 同質性이 結婚의 質에 미치는 影響력만을 추출해서 그 統計的 有意性을 檢定하기 위해서는 각종 人口·社會·經濟的 特性이 갖는 影響力을 통제하여야만 한다.

人口·家族의 特性에 관한 變數로는

- ① 결혼후 조사당시까지의 부모 혹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② 결혼후 조사당시까지의 부모 혹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③ 現存 子女數

④ 結婚期間

등을 선정하였으며, 社會·經濟的 變數들로는,

① 부인의 經濟活動 與否

② 부인이 속한 家口의 月平均 收入

등을 선정하였다.

### 3. 分析方法

이 研究는 부부간의 同質性이 結婚의 質에 及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檢證하는 데 主目的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結婚의 質에 대한 指標을 算出한 다음, 부부간의 同質性(혹은 異質性)을 나타내는 變수들과 結婚의 質 사이의 因果關係를 檢證코자 하였다.

結婚의 質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人口·家族的, 社會·經濟的 變數에는 많은 것이 있겠으나, 본 研究에서는 資料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變수들중에서 앞 節에서와 같은 몇가지 變數만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變數들 中 結婚期間 등 일부 人口·家族·社會·經濟的 變數들은 結婚의 質과 비선형의 關係를 갖는다는 것이 外國의 경우에는 발견된 바 있다(글렌, 1990). 그러나 본 研究에서는 모든 變수들에 對해 結婚의 質과 선형의 關係를 가지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물론 여러가지 형태의 函數關係를 시도해 보아야 하겠으나 본 研究의 목적이 結婚의 質과 因果關係를 가지는 人口·家族·社會·經濟的 變數들을 규명해 내거나 그 구체적인 因果關係의 形態를 分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關係를 단지 선형으로만 假定한 것이다.

統計技法으로는 OLS 방식에 의한 回歸分析을 이용하였으며, 結婚의 質과 부부의 同質性간의 因果關係에 對한 分析 뿐만 아니라, 이와 아울러

부부의 同質性, 人口·家族의 特性, 社會·經濟的 特性 등 세 집단 의 變수들을 단계적으로 독립變수에 포함시켜 봄으로써  $R^2$ 의 增加分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이들 세 집단 의 變수들간 에 통계적인 說明力을 비교·分析하였다.

## IV. 分析의 結果

이 研究에서는 結婚의 質을 主觀的인 指標와 客觀的인 指標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主觀的인 指標는 結婚生活에 있어서 부인이 느끼는 滿足度들을 중심으로 算定되어진 반면에, 客觀的인 指標는 結婚生活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相互作用의 頻度를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이처럼 結婚의 質을 主觀的인 指標와 客觀的인 指標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것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結婚의 質에 關한 研究들에서 結婚의 質을 結婚生活의 過程에서 느끼는 滿足度나 幸福感으로, 또는 結婚生活에서 이루어지는 對話의 頻度나 種類 등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理論的 背景을 갖는다(클라크 니콜라스와 게리 리틀, Clark-Nicholas and Gary-Little, 1991; 로렌츠 외, Lorenz et al., 1991; 슈터, Suitor, 1991). 이 研究의 實證分析에 쓰여진 結婚의 質을 나타내는 主觀的인 指標와 客觀的인 指標사이에는 큰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r=0.34$ ), 이는 指標의 測定過程에서 비롯되어지는 方法論上의 問題 때문일 수도 있으나, 結婚生活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相互作用 頻度와 그들이 結婚生活에서 실제로 느끼는 滿足度와는 큰 相互關係가 없는 탓일 수도 있다.

부부의 同質性은 부부의 出生地, 年齡, 宗教, 그리고 教育水準을 바탕으로 측정하고, 이들이 主觀的인 指標와 客觀的인 指標로 측정되는 結婚의 質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回歸分析을 하였다. 回歸分析의 結果를 <표 5>와

〈표 6〉에 정리하였는데,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를 從屬變數로 한 各 回歸分析 模型 全般에 걸쳐 R<sup>2</sup>가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主觀的 指標를

從屬變數로 한 模型과 客觀的 指標를 從屬變數로 한 模型을 비교하여 보면, 主觀的 指標를 從屬變數로 한 模型보다 客觀的 指標를 從屬變數로

**Table 5. OLS Regression Coefficients on the Subjective Index for Marital Quality**  
客觀的 指標 算定에 사용된 變數들 間의 相關係數

Variables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Different birth place	-.063	-.036	-.089*	-.053
Difference in age	-.018**	-.063	-.015*	-.052
Different religious affiliation	-.122*	-.044	-.112	-.040
Difference in educational attainments	-.004	-.013	-.003	-.007
Household's monthly income			.002***	.098
Wife's labour force participation			-.101**	-.059
Cohabitation with parents			-.095	-.037
Marital Duration			-.132E-3	-.024
No. of living children			-.008	-.015
Constant	.124		.174	
F		4.24		5.51
Adjusted R <sup>2</sup>		.006		.019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 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 0.05

**Table 6. OLS Regression Coefficients on the Objective Index for Marital Quality**  
模型內 各 變數들의 平均 및 標準偏差

Variables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Different birth place	.145***	.087	-.003	-.002
Difference in age	-.034***	-.123	-.017**	-.061
Different religious affiliation	-.190***	-.070	-.176**	-.065
Difference in educational attainments	-.005	-.015	.004	.011
Household's monthly income			.003***	.155
Wife's labour force participation			-.073**	-.044
Cohabitation with parents			.099	.039
Marital Duration			-.001***	-.219
No. of living children			-.032	-.062
Constant	.104		.164	
F		15.79		31.80
Adjusted R <sup>2</sup>		.027		.123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 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 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 0.05

한 모델의  $R^2$ 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다시 독립변수의 特性別로 보면, 부부의 同質性을 나타내는 4개의 변수들보다 人口·社會·經濟的 變數로 포함된 5개의 變數들이  $R^2$ 에 대해 寄與度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現象은 특히 客觀的 指標를 從屬變數로 한 模型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표 5>와 <표 6>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人口·社會·經濟的 變數中 月平均 所得, 結婚期間 등이 他 變數들에 비해 從屬變數의 變量을 더 많이 설명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現象은 月平均 所得이나 結婚期間이 結婚의 質과 보다 밀접한 因果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他 變數들은 모두 0과 1의 두가지 變異(variation)만을 가지는 더미변수인 반면 이들 두개의 변수들은 광범위한 變異를 가지는 數量的 尺度로 측정된 變數라는 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각 回歸分析 模型別로 독립변수들의 係數를 보면, 부부의 同質性만을 回歸模型의 說明變數로 하였을 때, 主觀的인 結婚의 質에 대해 0.05 이하의 有意水準에서 통계적으로 有意味한 傾向을 미치는 同質性은 나이와 宗教에서 비롯되는 同質性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結婚의 質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方向도 앞에서 설정된 假說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부부간의 연령차가 많을수록 부인들이 그들의 結婚生活에서 느끼는 滿足度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부의 종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종교를 가진 부부보다 結婚의 質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模型의 影響은 結婚의 質을 客觀的 指標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지 主觀的 指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못미치던 出生地에 바탕을 둔 부부의 同質性이 客觀的 結婚의 質에

미치는 영향은 0.001 有意水準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教育水準에 바탕을 두는 부부의 同質性은 主觀的인 結婚의 質이나 客觀的인 結婚의 質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이는 影響의 方向은 다른 同質性의 경우와 같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간의 教育水準에 차이가 많이 날수록 結婚生活에서 부인이 느끼는 滿足度나 부부간에 일어나는 相互作用의 頻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 回歸分析의 結果는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부부의 同質性에 따라서 結婚의 質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外國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實證分析의 結果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回歸分析의 두번째 단계에서는 부부가 지닌 人口 및 家族의 特性과 社會經濟的 特性을 부부의 同質性和 함께 분석의 模型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에도 부부의 同質性이 結婚의 質에 미치는 影響의 類型은 전혀 바뀌지 않으나, 影響의 統計的 有意度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主觀的 婚姻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의 同質性에서는 宗教的 同質性이 갖는 影響의 統計的 有意度는 낮아지고, 대신에 出生地에 따른 同質性이 主觀的인 結婚의 質에 統計的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客觀的 指標로 측정된 結婚의 質에 대해서는 出生地에 따른 부부의 同質性의 統計的 有意도가 낮게 나타났다.

回歸分析의 두번째 模型에서 추가된 說明變數들 중에서 부부의 社會經濟的 特性이 主觀的인 結婚의 質과 客觀的인 結婚의 質에 대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특히 月平均 所得, 부인의 經濟活動 與否, 結婚期間 등이 有意水準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影響의 方向도 앞의 假說檢證 模型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부인이 속한 家口의 月平均 所得이 높을수록

結婚의 質은 높아지고 있으며, 부인이 就業을 하고 있는 경우엔 남편과의 相互作用의 程度가 낮을뿐만 아니라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느끼는 滿足度가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인이 經濟活動을 하고 있는 부부일수록 滿足度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들이 就業을 하고 있는 理由가 社會活動을 통한 婦人個人의 自我發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보다는 가정의 經濟的인 어려움을 解消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統計的인 有意性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現存子女數는 主觀的 指標를 從屬變數로 한 모델들과 客觀的 指標를 從屬變數로 한 모델들 모두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結婚期間과 子女數 사이에 비교적 높은 相關關係가( $r=0.76$ )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從屬變數가 가지는 變量中 現存子女數가 설명해줄 變量의 상당부분을 이미 結婚期間이 설명해버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說明變數들간에 높은 相關關係가 있을 경우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의 問題가 발생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이 있을 경우 推定係數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가 커지고 標本(sample)에 따라 推定值의 값이 큰 변화를 보인다거나 하는 問題點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본 實證分析에서는 相關關係를 가지는 독립변수가 結婚期間과 現存子女數 두개에 지나지 않고, 또한 實證分析의 目的이 獨立變數들의 影響力을 서로 비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現存子女數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分析結果에서도 추정된 係數의 표준오차도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要約 및 結論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同質性이 結婚의 質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結婚生活에 있어서 부인이 느끼는 滿足度들을 중심으로 結婚의 質에 대한 主觀的 指標를 산정하고, 結婚生活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相互關係를 바탕으로 客觀的인 結婚의 質을 측정하였다.

부부의 出生地, 年齡, 宗教, 그리고 教育水準을 바탕으로 측정된 부부의 同質性이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로 측정된 結婚의 質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回歸分析을 하였다.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의해 1989년에 수행된 '韓國 家族機能 調査'의 資料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實證分析의 結果는 結婚의 質을 나타내는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 사이에 큰 相關關係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回歸分析의 結果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부부의 同質性이 커질수록 結婚의 質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外國의 기존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結婚의 質에 대한 研究가 本格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實證分析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課題를 많이 示唆해 주고 있다. 이는 이 연구가 지니는 制限點에서 비롯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結婚의 質에 대한 理論的 바탕의 體系化와 이의 實證分析을 위한 資料의 蒐集에 관계된다.

이 연구의 實證分析에서 사용된 資料는 특정 시점에서 조사된 橫斷面 資料인데, 結婚의 質을 분석하는 데 몇가지 制約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로는, 調査時點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橫斷面 資料를 사용할 경우 이혼한 부부들은 分析對象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點을 들 수 있다. 調査時點 이전에 이미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혼할 당시에 結婚의 質이 높은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본다면, 결국 이들 부부들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은 이혼 당시 結婚의 質이 극히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離婚夫婦들의 경우도 당연히 결혼의 질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分析對象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 조사자료에서는 結婚의 質을 指數化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변수들이 離婚夫婦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離婚夫婦들을 分析의 對象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結婚의 質을 연구할 때 橫斷面 資料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글렌(1990)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그는 縱斷資料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資料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가 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자료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結婚의 質을 나타내는 主觀的 指標를 산정함에 있어 남편에 대해 부인이 느끼는 滿足度만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으며, 남편의 부인에 대한 滿足度나 부부간의 關係 自體에 대한 滿足度 등의 측면은 고려할 수 없었다.

主觀的 指標 算定에 사용된 변수들을 보면, 이 변수들이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같이 부인들이 남편의 健康, 性格 등 여러 측면에 대해 느끼는 滿足度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남편이 부인에 대해 느끼는 滿足度의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부인이 남편 개인에 대해 느끼는 滿足度 즉, 夫婦關係를 형성하는 構成員 個人에 대해 느끼는

滿足度의 측면만이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배우자 개인에게 느끼는 滿足度와 夫婦 關係 自體 혹은 結婚生活 自體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인의 남편에 대한 滿足度, 남편의 부인에 대한 滿足度, 夫婦關係 自體나 結婚生活 自體에 대한 부부서로간의 滿足度 등 이 세가지 滿足度 사이에 높은 相關關係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중 한가지 만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얼마만큼 現實性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現實性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를 수 용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

## 參 考 文 獻

- 공세권, 조애저, 김진숙, 장현섭, 서미경, (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호재, (1983), 가족과 사회, 개정판 서울: 경문사.
- 한국여성개발원, (1991), 여성백서-1991.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Edwards, John N., Theodore D. Fuller, Sairudee Vorakitphokatorn and Santhat Sermsri (1992), "Female Employment and Marital Instability: Evidence from Thailand."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4(1): 59~68.
- Fincham, Frank D. and Thomas N. Bradbury, (1987), "The Assessment of Marital Quality: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49: 797~809.
- Glenn, Norval D., (1990), "Quantitative Research

-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2(4) : 818~831.
- Hughes, Diane, Ellen Galinsky, and Anne Morries, (1992),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Marital Quality : Specifying Linking Mechanism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4(1) : 31~42.
- Johnson, David R., Lynn K. White, John N. Edwards, and Alan Booth, (1986),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 Toward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Refin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7(1) : 31~49.
- Lewis, Robert A. and Graham B. Spanier,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pp. 268~294 in Wesley R. Burr et a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 Research-Based Theories*. Volume I, New York : The Free Press.
- Norton, Robert,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45(1) : 141~151.
- Ortega, Suzanne T., Hugh P. Whitt and J. Allen Williams, Jr, (1988), "Religious Homogamy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9(1) : 223~239.
- Shehan, Constance L., E. Wilbur Bock and Gary R. Lee, (1990), "Religious Heterogamy, Religiosity, and Marital Happiness : The Case of Catholic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2(1) : 73~79.
- Vannoy, Dana, and William W. Philliber, (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4(2) : 387~398.

〈Summary〉

## The Effects of Homogamy on Marital Quality

Keywon Cheong\* · Sang-Young Lee\*\*

Previous studies on marriage have suggested that homogamy operates as a norm in mate selection, and the data from a handful of studies in other countries have supported the hypothesis that the greater the premarital homogamy, the higher the marital quality. Using data on family structures and functions in Korea, this study assesses the effects of homogamy on the quality of marriage, and disentangles the relative effects of the homogamy from those of other socio-economic objective index. The subjective index of marital quality is developed through the degree to which the wife was satisfied with her spouse's characteristics. The objective quality of the marriage was indexed by the degree to which the couples were interacting and communicating. Homogamy was measured in terms of the region of birth, age, educational attainment, and religious affiliation of husband and wife. A two-step hierarchical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in analyzing the data from the Korea Family Functions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in 1989. Major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

a) Homogamy, in particular measured in terms of differences in age and religion between

spous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quality of marriage as measured by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indexes.

b) The greater the age gap the low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marriag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pouses.

c) A couple with different religious backgrounds has lower index scores.

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couple account for a larger proportion of variation in both the indexes for marital quality, than the variables used for homogamy,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ave a closer relationship with marital quality than homogamy, because the problem of measurement scale is involved. A good possibility remains that a different picture will evolve only if a better designed index for homogamy is developed.

There has been little study on the quality of marriage in Korea, and since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considerably towards the reservoir of the studies in this field.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